



“뿌리 확인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”...세계한인차세대대회 폐막

- 재외동포청, 30일 인천서 폐막식 열어...31일 ‘차세대 대표자회의’ 개최
- 변철환 차장 “차세대 리더로서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더 큰 역할 해달라”

□ ‘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’가 5월 3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.

○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지난 27일부터 ‘연결된 세계 속 한인, 더 큰 도약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 대회를 주최했다.

○ 대회에 참가한 26개국 63명의 차세대 한인 리더들은 나흘동안 각국 주류사회 진출 및 한인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, 지역 차세대 대회와 소속 단체의 모범 활동 사례 등을 발표했다.

○ 또 국회 부의장과의 차담회를 비롯해 재외동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‘차세대 역할과 네트워크 확대 방안’이라는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가 하면 남산 국악당에서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.

○ 참가자들은 폐회식에 앞서 한자리에 모여 대회 기간동안 다뤘던 주제들에 대한 종합토의 및 조별발표를 진행했다.

□ 폐회식은 같은 장소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○ 변 차장은 폐회사에서 “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의 모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.”고

밝혔다.

○ 이어 “다양한 토의와 발표를 통해 제시된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향후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.” 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 “차세대동포 여러분은 글로벌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이며, 앞으로도 거주국에서 리더로서 역할과 모국과 동포 사회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□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‘재외동포청과의 대화’ 시간이 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”고 평가하기도 했다.

○ 재외동포청은 31일 부대행사로, 세계 각 지역의 차세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‘차세대 대표자회의’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	책임자	과장	김 채 영	032-585-3213
		담당자	사무관	김 주 동	032-585-3214
			주무관	김 기 홍	032-585-3218